전북지역 고교생의 사회인구학적, 심리 · 환경적 특성과 대처방법이 스트레스 받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ES, Psychological Environments, Stress Coping Method on High School Students' Stress in Choen-buk

원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 교 수 송 순

Wonkwang University. Dept of Child Development
Assistant Professor : Song, Soon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문헌고찰 및 이론적 배경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high school students' stressful life events, to examine effects of SES, psychological environments, stress coping methods on stress. Data were collected by 965 high school students in Cheon-buk. Data were analyzed with the frequency, percentage,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OVA test, Multiple Regression in use of SPSS WIN 7.5 Program.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

1. High school students' stressful life events are ① comparing · interference · scolding, ② having a bad at their study. ③ educational environments ④ ability ⑤ apearance. Peoples stressed me are ① her(him)self ② friend and ③ teacher. Stress coping behaviors are it's ① speak ill a person. ② listen to the music. ③ sleep. ④ be patient. ⑤ keep still or take breath deeply. 2. SES, Psychological Environments, Stress Coping Methods are related to stress. Especially hopeless in future, parental not affections and parental interference are related to stress highly. Also the stress by sex discrimination are related to gender intimately. 3. Effects of SES, Psychological Environments, Stress Coping Method on high school students' stress are very differnet.

* 본 연구는 1999년 원광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So it must to be differentiated the support on the high school students' stress.

◆ key word: 고교생의 스트레스

Ⅰ. 문제제기

청소년기는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안에서 미래를 위해 가능성을 탐색하며 일상생활 패턴이 형성되어 나타나는 시기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성공에 대한 압력은 정신적 · 신체적으로 긴장을 유발하기 쉽고 연령에 따라 다른 경험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쉬운 시기이다. 청소년은 학교교육의 대부분을 시험 준비교육에 치중하여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입시경쟁의 부담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다.

우리 나라 고등학생들의 대다수(약90%)가 가정, 학교, 대인관계 문제영역에서 한가지 이상의 적응곤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의 학생들(약 30%)은 신경증이나 우울증, 성격장애, 심지어는 심리적으로 정신분열과 같은 다양한 부적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김광일 외, 1982). 또한 청소년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행동적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충돌이 청소년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Compass & Fondaro, 1988 · 고희숙, 1997).

인간은 일상적인 생활에 산재되어있는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이 갈등을 재조직하고 이에 잘 대응하면 곧 새로운 균형상태인 적응상태를 맞이할 수 있으나, 스트레스 자극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무기력하게 되고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부적응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완충망이 적절히 작용되지 않으면 청소년 자신이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과 각종 부적응 현상을 유발시키며 청소년기 발달장애를 일으키고 질적인 삶에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완충망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다양하겠으나 청소년들의 환경이란 주위의 힘있는 성인들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한 조건이며 청소년들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의 미래 발전에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교생의 일상생활 사건 중 그들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건들과 사람들,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대처행동들을 조사하고, 사회인구학적, 심리 · 환경적 특성과 대처방법에 따른 스트레스 받는 정도의 차이를 조사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환경 마련과 지도를 위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문헌고찰 및 이론적 배경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학교, 또래로 스트레스의 출처를 구분한 연구(Sliddique & D'Arcy, 1984) 에 의하면 모든 출처에서의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었고 특히 가족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복지감(불안, 우울, 사회적 역기능, 무력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성별, 계열, 성적, 학년, 종교, 부모의 생존여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생활 만족도, 가족만족도,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에 따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도는 차이가 있으며 가정생활 만족도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인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자, 1990).

부모의 학력과 관련해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스트레스인지도가 낮았고, 중졸, 국졸, 고졸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학생들의 순서로 스트

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강현숙, 1980).

부모의 직업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도는 생산 근로직 아버지의 학생들이 스트레스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사무직, 행정직 자녀의 순 이었고, 아버지가 전문직을 가진 학생이 가장 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학생이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학생보다 스트레스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박용자, 199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편부모 가족 학생들이 양친가족의 학생들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강현숙, 1989) 부모의 훈육 방법이 일관성이 없거나 부적절할 때 자녀는 부모에 대한 거부감과 불만이 쌓이게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자녀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하고, 자신이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믿고 있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비행을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학교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곳으로서 학교 생활은 청소년기의 가장 큰 스트레스원의 하나이다 (Fullertor & Potkay, 1973 : 이정숙 · 조길자, 1982 ; 안병조, 1984 ; 고희숙, 1997). 특히 학교내의 인간관계는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관계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중산층 학생에 대해서는 관용과 융통성을 보이고, 하위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전통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높으며(Yee, 1968) 청소년들은 실제로 특정 교사에 대한 기피도가 72.4%로 교사의 편애 등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영식, 1985).

청소년들은 특히 학업이나 성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정체감, 진로, 대인관계 등의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노혜숙, 1986 : 이정순, 조길자, 1982 : 이재원, 1989).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에게 불안, 우울, 두통, 등의 부 적응을 초래하여(이명희, 1989 ; 이정순, 1988 ; 최해림, 1986)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과 지각 정도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각 집단마다 조금씩 다르고 스트레스 요인과 지각정도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나(이명희, 1989 ; 최해림, 1986) 성 차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결과도 있다 (이정순, 1988).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친구관계 문제와 성적관련 문제 순으로(김정겸, 1987) 청소년은 자신문제, 학교생활, 대인관계, 가정생활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영, 1993).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스트레스원이기도 하지만 동성친구는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원이며 그들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은 주로 공감, 격려 및 용기, 대화 경청, 이해 등의 정서적 지원과 해결방법 제시, 조언 등의 정보적 지원이며 이러한 지원이 효율성이 높다고 한다(이경희 · 김광웅,1996).

2. 심리 · 환경적 특성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청소년의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심리 · 환경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 자아개념이 자기자신에 대해 갖는 개인의 인지와 감정의 총체라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아수긍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존경하는 정도가 높고 스스로를 상당히 가치 있다고 평가하고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Rosenberg,1978 : 방영자, 1997). 또한 자신감이란 장애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이나 자신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이며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정도를 나타내지만 오만함이나 자신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

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Weigel과 그의 동료들(1989)은 가정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입각하여 Kliewer와 Sandler(1992)는 238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증상(우울, 불안, 행동장애)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의 주 효과는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하였으나 완충효과는 여학생에게서만 발견하였다. 즉 여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적을 때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나 낮은 집단간에 심리적인 증상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심리적 증상이 높은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심리적 증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와 적응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부 적응의 관계에 개입하는 방법은 첫 단계는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고, 두 번째 단계는 감소된 자아존중감이 부 적응을 증가시키는 것이다(Kaplan, 1983).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킨다는 경험적 증거로서, 부모의 이혼이나 알콜중독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을 발견하였으며, Burt와 Cohen 그리고 Bjorck (1987)들은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킴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스트레스요인이 사회적 수용의 경험과 능력감을 계발시킬 수 있는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부분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주거나 스트레스 사건 자체가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위협하는 것을 나타내어 준다.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과정은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위협하거나 또는 존중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계를 훼손시킴으로써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킨다(이영자, 1995).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청소년의 관계망은 스트레스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확보하고 있는 관계망은 스트레스 완화에 주효과와 자아존중감의 감소를 방지함으로서 완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정의감이 발달하고 사회적 자아가 발달하는 시기이어서 사회적 도덕성이나 비도덕적인 인간에 대해 분노하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통지향적 사회가 붕괴되고 가족이나 친족집단의 유대가 약화되면 젊은이들은 부락의 성인들이나 집안의 어른에게서 벗어나서 동년배 집단에서 동일시 대상을 찾으며 수많은 자생적인 친우집단을 형성하고 그들의 집단규범을 따르는 경향이 생겨나며(Riesman, 1961 : Eisenstadt, 1972) 이러한 집단의 크기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래집단의 형성은 대부분 친구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래집단에서 제외될 때 청소년의 주변인적 특성은 더욱 가중된 소외와 좌절을 유발하며 정서 중심적 친구관계가 이기적 친구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특히 불안수준이 대체로 높아가게 되며 (Kovach, 1983)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갈등수준, 불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본다.

청소년의 가정환경요인인 가정화목도와 가족형태는 의사소통을 매개로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교우관계 등 사회적응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으로서 (정유미 · 김득성, 1998) 청소년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이다. 특히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여부는 스트레스에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족은 가족스트레스를 덜 받고,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가족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며 가족간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정도는 스트레스정도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측요인이 된다(이정우, 1990 : 김용미, 차은정, 1992).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 · 환경적 특성 중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개방성 정도는 스트레스 받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주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이은영, 1981: 이종목, 1985).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동일한 생활사건이라 할 지라도 그것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처란 자신이나 외부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며, 특정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지는 특정 행동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응 방식이 대처전략이다(Lazarus & Folkman, 1984 : Compas, 1987 ; 고희숙, 1997).

Lazarus등은 대처란 개인이 자신의 자원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위협적이고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응행동의 과정이고, 문제해결 노력이며 인지적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Pearlin, Schooler, 1979 : Lazarus, et.al., 1984).

대처행동이란 효율성과는 상관없이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한 개인의 모든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다. 그러나 대처행동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나 반응의 범위를 반사행동까지 포함시키느냐 의식적 행동으로 제한하느냐에 따라 대처행동의 개념규정은 달라진다. 대처행동을 '직접적 · 잠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개인이 보이는 모든 반응'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대처행동을 혐오적 자극에 대한 학습된 반응 뿐 아니라 위협에 대한 본능적 · 반사적 행동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Silver& Wortman, 1980). 그러나 본능적 · 반사적 행동까지 대처행동의 정의에 포함시키면 환경에 대해 인간이 반응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시켜야 함으로 너무 광범위하여 대처행동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대처행동의 구체적인 규명을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수반되는 행동측면으로 범위를 조작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 · 고등학생들의 주 스트레스원은 학업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처행동은 음악듣기, 혼자생각하기 등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극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이경희 · 김광웅,1996).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행동은 특별한 기술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청소년이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문화창조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이며 성인기 생활의 삶의 질 문제와 관련될 것이다. 대처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접근적 대처방법과 회피적 대처방법으로 분류되며 접근적 대처방법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형태의 대처방법을 말하고 회피적 대처방법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하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형태의 대처방법을 말한다

접근적 대처모델과 회피적 대처모델들은 능동적 혹은 접근지향적 대 수동적 혹은 회피지향적 전략들로 개념화(Billing & Moos, 1981; Lazarus & Folkman, 1984 ; Roth &Cohen, 1986)할 수 있으며, 접근적 전략들은 문제에 관한 사고방식을 전환시키는 인지적 시도와 문제 혹은 결과를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사건들을 해결하려는 행동적 시도를 포함하고 회피적 전략들은 위협을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인지적 시도와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혹은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행동적 시도를 포함(Ebata & Moos, 1991)한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접근적 또는 회피적 대처모델을 사용하였다. 고교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내에서 유발되는 일상적인 생활사건으로 한정하였고 사전조사에서 무작위로 토해낸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체계적으로 구조화 하였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앞에서 고찰한 문헌고찰 및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교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생활사건들과 스

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 대처행동들은 무엇인가?

2) 사회인구학적, 심리 · 환경적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따른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3) 사회인구학적, 심리 · 환경적 특성과 대처방법이 스트레스 받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1) 자료

전북지역 3대도시인 J · I · K시에 거주하는 인문계/실업계 남녀고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0월14일~10월19일까지 인문계 실업계 여학생 2학급 86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 조사하였다. 개방형 질문지의 내용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건, 사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는 행동들을 기재하는 것이며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건은 사회, 학교, 가정,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10월20일~10월26일 개방형 질문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10월 28일~11월 20일까지 본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20부를 배포하여 98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956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2) 척도

개방형 질문지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트레스에 관한 척도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받는 사건은 21항목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자신이 경험한 스트레스 받는 사건 다섯 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표기하게 하였다. 스

〈표 1〉 요인항목

요인명	문항번호	설 문 내 용
사회질서 α =.721	47	비양심적인 사회지도자들의 행태를 본적이 있다 .
	46	사회문제들(유괴, 부모살해, 성폭력)에 대한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52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어른들을 볼 때가 있다.
	50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만이 이기는 세상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학교생활 α =.641	26	학교의 시설이 열악해서 학업에 지장이 있을 때가 있다.
	23	학교생활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다.
	16	학교환경(교실 매점)이 비좁고 시끄럽다.
	24	시험을 너무 자주보고 과목이 많다.
교사의 폭언 α =.662	29	아이들이 많은 데서 혼난 적이 있다.
	20	교사의 구타나 무리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30	나는 교사의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
가정생활 α =.605	11	다른 집 아이랑 비교당할 때가 있다.
	01	형제나 친척들과 성적을 비교하며 지나친 기대와 간섭을 받은 적이 있다.
	05	부모님이 일상생활을 간섭하며 지나치게 요구할 때가 있다.
성차별 α =.716	56	여자(남자)라고 무시당할 때가 있다.
	42	여자.남자 성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12	딸.아들 차별을 당할 때가 있다.
미래 희망 α =.636	48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될지 모르겠다.
	37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38	나는 개성이 없다.
부모무관심 α =.690	07	식구들이 나에 대해 무관심할 때가 있다.
	13	부모님이 무관심할 때가 있다.
	06	부모님이 편애할 때가 있다.

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은 10항목을 제시하고 그중 자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 3명을 순서대로 표기하게 하였다.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행동을 24항목을 제시하고 자주 하는 행동 5개를 순서대로 표기하게 하였다. 항목들은 예비조사 단계에서 개방형 질문지에 기재한 내용 중에서 빈도가 높은 항목들을 순서대로 선택하였다.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예비 조사한 개방형 응답내용을 참고하여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는 내용들을 개인, 가정, 학교, 사회환경의 범주로 분류하여 60문항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경험하지 않은 스트레스 사건은 0점 처리하여 0~5까지 6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60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24문항이 7개의 요인으로 묶였으므로 재 명명을 하였다. 23문항 전체에 대한 내적 신뢰도 α = .780이었다.

② 대처방식에 관한 척도

Lazarus & Folkman의 척도를 참고한 이시은(1997)의 척도를 참고하여 조사자가 구성하였으며 접근적 방법과 회피적 방법 모델을 사용하였다. 대처방법에 대한 내적 신뢰도 값은 다음과 같다.

: 접근적 회피적 대처모델 24문항을 사용하여 요인분석결과 접근적 8문항(α =.779), 회피적 4문항(α =.665)이 요인항목으로 묶이었으며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 전체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α = .724)이었다. 분석에 활용한 문항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③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성별, 성적, 종교, 가정생활수준, 실업계/인문계, 부모직업, 부모학력이었다.

④ 심리 · 환경적 변수들은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의사소통 개방성/폐쇄성, 가정화목,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 망(가족, 친척, 친구) 수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Coopersmith(1967)의 자아존중감척도를 참고하여 송순(1998)이 사용했던 척도 중에서 10문항을 척도로 구성하였고 실재 분석에 사용한 문항과 문항의 신뢰도값은 〈표 3〉과 같다.

의사소통에 관한 척도는 방문희(1991)의 자료를 참고하여 10문항을 구성하였으며 6문항은 개방형척도로 4문항은 폐쇄형 척도로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은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3)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7.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의 명료화를 위해 빈도분석과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조사도구들의 내적 일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신뢰도 검사를 하였다. 스트레스 생활 사건들과 대처행동들의 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excel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산하였고 사회인구학적,

〈표 2〉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처방식	문항번호	설 문 내 용
접근적 방법 (α =.779),	10	더 많은 것을 발견해 보려고 노력했다
	18	문제해결에 융통성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09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그 문제를 해석해 보았다
	24	자신이 처한 환경을 새롭게 변화 시켰다
	05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여 보려고 온갖 힘을 다했다
	15	현 상태 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배웠다
	23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해 보았다
	20	직접적인 알맞은 행동을 취했다
회피적 방법 (α =.665)	07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다
	06	문제가 저절로 사라져 버리기를 바랬다
	13	누군가 사건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12	엉뚱한 환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표 3〉 자아존중감 문항

	문항번호	설 문 내 용
자아존중감 α =.643	01	나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04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
	05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06	친구들은 주로 내 생각에 따른다.
	09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서슴지않고 그것을 말한다.

〈표 4〉 부모와의 의사소통 개방성(모와의 개방성 설문문항은 부와의 개방성 문항을 참조)

부와의 개방성	문항번호	설 문 내 용	문항번호	모와의 개방성
개방형 α =.857	02	부모님은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주신다.	06	개방형 α =.838
	06	나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과 의논한다.	02	
	01	나는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한다.	01	
	09	부모님은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09	
	05	부모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기분상태인지 아신다.	05	
	07	나는 부모님께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07	
폐쇄형 α =.681	08	나는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 조심스러운 편이다.	03	폐쇄형 α =.567
	03	때때로 나는 부모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부탁드리기가 어렵다.	08	
	10	부모님께 진실한 나의 느낌을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렵다.	10	
		부모님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다.	04	

심리 · 환경적 특성,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스트레스 받는 정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집단별 평균분석)을 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심리 · 환경적 특성과 대처방식에 따른 스트레스 받는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적률 상관계수와 Spearman 상관계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는 부와 모와의 의사소통개방성과 폐쇄성을 제외하고는 0.4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전북지역 (J시=301명, I시=320, K시 = 335) 남녀 고등학교 재학생 956명 (남학생 473명, 여학생478명 학년: 1학년 471명, 2학년 4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5〉와 같다.

2. 고교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생활 사건들과 대처행동들

Exel프로그램에서 (사건1*1.0)+(사건2*0.8)+(사건3*0.6)+(사건4*0.4)+(사건5*0.2)와 같은 공식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계산을 하였다. 그 중 가장 점수를 많이 얻은 항목별로 순위를 정하여 정리하였다.

1) 21개의 스트레스 사건들 중고교생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생활 사건 5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비교, 간섭, 잔소리. ② 공부를 못한다 ③ 교육풍토 ④ 능력 ⑤ 나의 외모의 순 이었다. 2) 가장 열 받게 하는 사람은 ① 나 자신 ② 친구 ③ 선생님의 순서이었다. 3) 열 받는 사건이 있을 때 자주 하는 행동 5가지는 ① 욕을 한다. ② 음악을 듣는다. ③ 잠을 잔다. ④ 그냥 참는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 분	빈도(%)	항목	구 분		빈도(%)	
성별	남학생	473(49.5)	인문계/실업계	인문계		326(34,1)	
	여학생	478(50.0)		실업계		329(34.4)	
				혼 합		301(31.5)	
종교	없 음	348(36.4)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가족	친구	친척
	기독교	380(39.7)		없음	224(23.4)	134(14)	589(61.6)
	천주교	98(10.3)		1명	269(28.1)	129(13.5)	158(16.5)
	불 교	80(8.4)		2명	255(26.7)	196(20.5)	101(10.6)
	원불교	32(3.3)		3명	143(15)	189(19.8)	44(4.6)
	기 타	12(1.2)		4명이상	65(6.8)	255(19.4)	55 (5.7)
가정생활 수준	상	172(18.0)	성적	상		227(23.7)	
	중	539(56.4)		중		479(50.1)	
	하	240(25.1)		하		243(25.4)	
부직업	비숙련.생산.농수산	240(25.2)	부학력	초 등 졸		72(7.5)	
	판매.자영업	296(31.0)		중 등 졸		601(62.9)	
	사무관리.전문직	352(36.7)		대졸이상		260(27.2)	
모직업	없 음	421(44.0)	모학력	초 등 졸		119(12.4)	
	비숙련.생산.농수산	133(13.8)		중 등 졸		730(76.4)	
	판매.자영업	279(29.2)		대졸이상		88(9.2)	
	사무관리.전문직	95(9.9)					

다. ⑤ 가만히 있는다. 또는 숨을 크게 들이쉰다. 의 순서이었다.

3. 사회인구학적, 심리 · 환경적 특성,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스트레스 받는 정도와의 관계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받는 정도와의 관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받는 정도와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 평균분석을 해 보았으며 그 결과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성별 집단에 따라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인별로 독립변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정도를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교생들의 스트레스 중 **사회질서**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성별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이 더욱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학교생활**에 의한 스트레스는 성별, 인문계/실업계, 부의 직업에 따라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이 실업계가, 부의 직업이 사무.관리.전문직 집단의 평균값이 높았다. **교사 폭언**에 의해 받는 스트레스는 인문계/실업계, 부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업계 학생집단과 부모의 학력이 중등학교집단의 평균값이 높았다.

가정생활에 의한 스트레스는 성별, 성적,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집단과 성적이 낮은 집단, 부의 직업이 없는 집단과 모의 직업이 사무 · 관리직인 집단과 부모 학력이 대졸이상 집단의 평균값이 높았다. **성차별**에 의한 스트레스는 성별, 학생들의 종교, 가정생활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집단과 기독 · 천주교 집단과 가정생활 수준이 낮은 집단의 평균값이 높았다.

자신의 **미래희망**에 의한 스트레스는 성별, 성적,

〈표 6〉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받는 정도 (집단별 평균값)

	성별		성적			종교			가정생활수준			인문계/실업계		
	남	녀	상	중	하	1	2	3	하	중	상	인문	실업	혼합
사회질서			1.94	2.10	2.14	2.01	2.11	2.03	2.15	2.04	2.04	2.01	2.14	2.05
학교생활			1.85	1.95	2.16	1.84	2.03	1.97	1.96	2.01	1.94	2.02**	1.87**	2.07**
교사폭언	1.65	1.68	1.39	1.70	1.89	1.62	1.68	1.66	1.68	1.68	1.59	1.54**	1.80**	1.66**
가정생활	1.82*	1.67*				1.69	1.79	1.71	1.77	1.71	1.80	1.67	1.78	1.79
성차별			.86	.93	1.07	.84**	1.01**	.82**	1.11**	.96**	.72**	.87	.96	1.05
미래희망						1.14	1.30	1.30				1.25	1.22	1.40
부모무관심			.81**	.93**	1.04**	.86	.96	.96				.77**	1.02**	1.00**

	부직업				모직업				부학력			모학력		
	1	2	3	4	1	2	3	4	중	고등	대졸	중	고등	대졸
사회질서	2.03	2.06	2.05	2.09	2.07	2.08	2.06	2.04	2.09	2.04	2.08	2.06	2.08	1.94
학교생활	1.72*	2.00*	1.91*	2.05*	2.00	1.93	1.96	1.09	1.89	1.97	2.05	1.91	2.01	2.05
교사폭언	1.63	1.60	1.71	1.69	1.67	1.53	1.76	1.58	1.50*	1.72*	1.70*	1.55*	1.75*	1.65*
가정생활	2.00*	1.66*	1.67*	1.83*	1.77*	1.65*	1.66*	2.00*	1.58**	1.73**	1.95**	1.65**	1.76**	2.02**
성차별	1.05	.86	.91	1.03	.93	1.05	.92	.95	.95	.92	.99	.98	.92	.97
미래희망	1.13	1.40	1.25	1.20	1.24	1.47	1.29	1.09	1.34	1.30	1.16	1.34	1.24	1.24
부모무관심	1.42*	.84*	.97*	.87*	.86	.93	1.00	.85	.93	.95	.83	.93	.90	.84

종교: 1=불교 · 원불교 · 천도교 · 대종교 · 기타, 2=기독교 · 천주교 3=없음

부모직업 : 1=없음 2=비숙련 · 생산 · 농수산직 3=판매써비스 · 자영업 4=사무 · 관리 · 전문직,

유의수준 ***: p<.001, **: p<.01, * p<.05

가정생활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집단과 성적이 낮은 집단과 가정생활 수준이 낮은 집단의 평균값이 높았고, **부모의 무관심**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성별, 성적, 가정생활 수준, 인문계/실업계, 부의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집단과 성적이 낮은 집단,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 실업계 집단, 부의 직업이 없는 집단의 평균값이 높았다.

2) 심리 · 환경적 특성,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스트레스 받는 정도와의 관계

심리 · 환경적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표 7〉에 나타났듯이 **사회질서**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스트레스의 대처방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접근적 방식, 회피적 방식의 값이 높은 집단이 평균값이 높았다.

학교생활에 의해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 수, 회피적 대처방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회피적방식 점수가 높은 집단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수가 1명인 집단이 평균값이 높았다. **교사의 폭언**에 의해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회피적인 방식, 부모와의 의사소통 개방성,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회피적 방식의 점수가 높은 집단과 부모와 의사소통개방성이 낮은 집단,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수가 1명인 집단의 평균값이 높았다.

가정생활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 가정화목,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회피적 방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의사소통 개방성이 낮은 집단과 가정화목이 낮은 집단,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1명인 집단, 회피적 방식의 점수가 높은 집단이 평균값이 높았다. **성차별**에 의해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자아존중감, 부와의 의사소통 개방성, 가정화목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과 가정화목이 낮은 집단, 부모와 의사소통개방성이 낮고 폐쇄성이 높은 집단이 평균값이 높았다.

미래희망과 관련하여 받는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 부모와 의사소통 개방성, 가정화목,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 · 친구 · 친척의 수,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에 다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 가정화목이 낮은 집단, 접근적 방식 낮고 회피적 방식이 높은 집단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집단, 친구가 1명인 집단, 친척이 없는 집단이 평균값이 높았다.

부모무관심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 가정화목,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회피적방식, 부모와 의사소통 개방성,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수, 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과 가정화목이 낮은 집단, 회피적방식의 점수가 높은 집단, 의사소통 개방성이 낮고 폐쇄성이 높은 집단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 · 친구가 없는 집단이 평균값이 높았다.

4. 사회인구학적 심리 · 환경적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스트레스 받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

집단별 평균분석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정도와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 〈표 6〉와 〈표 8〉에서 처럼 나타났으나 이들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즉 사회인구학적, 심리 · 환경적 특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들이 스트레스 받는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계별 다중회귀 분석은 각 하위별 종속변수에 첫 번째 단계에서 사회적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모델에 삽입하였고($R^2$1) 두 번째 단계에 심리 · 환경적 변인($R^2$2)를 세 번째 단계에 사회인구학적 변인들($R^2$3)을 추가하였다. 분석결과들은 〈표 10〉과 같다. 표는 독립변인들이 얼마나 종속변인을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결정계수를 표시하고 있으며 첫 번째 단계의 결정계수=$R^2$1, 두 번째 단계의 결정계수= $R^2$2 , 세 번째 단계의 결정계수=$R^2$3 로 표기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설명력의 차이를 보고자 할 때 는$R^2$1, $R^2$2 , $R^2$3 값들 간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된다.

스트레스 받는 정도들은 사회인구학적, 심리 · 환경적, 대처방식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독립인들에 의해서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종속변인들은 성차별($R^2$3=.265), 미래희망 없음($R^2$3=.240), 부모무관심($R^2$3=.142), 가정생활($R^2$3=.110), 학

〈표 8〉 심리 · 환경적 특성 · 대처방식과 스트레스 받는 정도와의 차이(집단별 평균값)

	자아존중감			가정화목			접근적방식			회피적방식		
	하	중	상	하	중	상	하	중	상	하	중	상
사회질서	2.02	2.12	2.05	2.13	2.02	2.07	1.99**	2.02**	2.18**	1.94**	2.10**	2.14**
학교생활	2.00	1.95	1.99	2.15	1.96	1.97	2.00	1.94	2.01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교사폭언	1.64	1.66	1.73	1.93	1.65	1.64	1.70	1.63	1.67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가정생활	1.76	1.78	1.66	1.90*	1.84*	1.69*	1.83	1.64	1.75	1.63*	1.74*	1.86*
성차별	1.04*	.93*	.75*	1.23*	.84*	.96*	.93	.96	.97	.86	.93	1.07
미래희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부모무관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98	.93	.87	.81*	.93*	1.04*

	의사소통 개방성 폐쇄성											
	부개방성			부폐쇄성			모개방성			모폐쇄성		
	하	중	상	하	중	상	하	중	상	하	중	상
사회질서	2.08	1.98	2.12	2.04	2.03	2.14	2.00	2.07	2.10	2.01	2.04	2.08
학교생활	2.03	1.93	1.98	2.01	1.92	2.05	2.00	2.01	1.95	1.91	1.94	2.00
교사폭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1.64	1.67	1.70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1.50	1.66	1.72
가정생활	[illegible]											
성차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1.02	.88	.98	.94	.96	.95	.93	.86	.99
미래희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부모무관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86*	.87*	1.07*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74*	.81*	1.00*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척			
	없음	1명	2명	3이상	없음	1명	2명	3명	4이상	없음	1명	2명	3이상
사회질서	2.07	2.07	2.09	2.02	2.05	2.15	2.06	2.04	2.07	2.06	2.13	2.11	1.97
학교생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1.98	2.01	2.06	1.90	1.99	2.00	2.02	1.94	1.91
교사폭언	[illegible]				1.68	1.60	1.62	1.60	1.75	1.68	1.72	1.68	1.55
가정생활	1.81*	1.84*	1.73*	1.59	1.72	1.76	1.75	1.68	1.80	1.75	1.80	1.75	1.70
성차별	.91	1.03	.97	.88	.97	1.02	.99	.92	.92	.95	1.06	.97	.84
미래희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1.43*	1.47*	1.38*	1.25*	1.12*	1.37*	1.31*	1.09*	1.04*
부모무관심	1.07*	.98*	.86*	.77*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95	1.03	.86	.73

유의수준 ***: p<.001, **: p<.01, * p<.05 N=956

교생활($R^2$3=.101), 교사폭언($R^2$3=.081), 사회질서($R^2$3=.0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β값)를 해석함으로서 사회인구학적 요인, 심리 ·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대처방식들이 스트레스 받는 정도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질서들에 의해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설명력이 5.3%정도이며 대처방식이 접근적일 때(β=.092*) 회피적일 때(β=.091**) 모두 유의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β=.080*)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높았으며 성별은 남학생일수록(β=-.123***)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낮았다. 특히 성별에 따라 사회적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많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설명력이 10.1%이며 회피적 대처방식일 때(β=.099*)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β=079*), 성적(β=.076*)이 높을 때 성별은 남자일 때(β=-.218***), 에 따라, 실업계일 때(β=-.129***)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낮았다.

학교생활중 **교사폭언**으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설명력이 8.1%이며 대처방식이 회피적 방식일 때(β=.154***),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β=.115***), 실업계일 때(β=.091*)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높았다.

가정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설명력이 11.0%이며 모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낮고(β=-.109*) 폐쇄성이 높을 때(β=.112*), 성적이 낮을 때(β=.117***)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높았다.

성차별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질문문항의 내용이 주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받는 성차별의 내용인데 성차별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설명력이 26.5%이며 스트레스증가율은 스트레스 받는 정

도와 심리적 특성변수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추가하였을 때($R^2$3-$R^2$2) 24.4%가 증가함으로서 성차별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율은 성별(β 값=-.491***)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가 가장 크며 여학생일수록 성차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희망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설명력이 24.0%로서 종속변수의 어떤 변수보다 영향력이 크며 특히 접근적 대처방식(β =-.193***)일 때는 부적 영향을, 회피적 대처방식(β =.120***)일 때는 정적영향을 받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β =-.188***), 성별(β =-.157***), 가정생활수준이 낮을 때(β =-.085**), 실업계일 때(β =-.081*)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높았다.

부모무관심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설명력이 14.2%이며 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β =.118*), 폐쇄적일 때(β =.125**), 모와 개방성이 낮을 때(β =-.249***), 가정화목도가 낮을 때(β =-.093*), 여학생일 때(β =-.243***), 성적이 낮을 때(β =.093**), 부직업이 비숙련.생산.농수산 (β =-.151*) 모직업이 판매.써비스.자영업(β =.073**)일 때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높았다.

〈표 11〉 사회인구학적 심리환경적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스트레스 받는 정도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β 값						
		사회질서	학교생활	교사폭언	가정생활	성차별	미래희망	부모무관심
스트레스 대처방식	접근적 방식	.092**	.022	-.027	.015	.075*	-.193***	.014
	회피적 방식	.091**	.099**	.154***	.046	.045	.120***	.030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	.078*	.079*	.115**	.001	-.031	-.188***	-.016
	의사소통 부개방형	.108*	-.009	-.076	-.017	.010	-.031	.118*
	부폐쇄형	.096*	.011	-.030	.063	.034	.022	.125**
	모개방형	-.045	.002	.008	-.109*	-.070	-.006	-.249***
	모폐쇄형	.006	-.064	.047	.112*	.043	.077	-.041
	가정화목	-.005	-.066	.014	.008	.001	-.018	-.093*
	관계망수 가족	.005	-.036	-.051	.020	.004	-.005	.014
	친구	-.007	.040	.025	.025	.005	-.005	-.034
	친척	-.026	.026	-.008	.038	.046	.018	.044
사회인구학적특성	성별[d]	-.127***	-.218***	-.035	.022	-.491***	-.157***	-.243***
	성적	-.010	.076*	.067	.117***	.009	.022	.093**
	종교[d] 불.원불.기타	.010	-.042	-.039	-.047	.020	-.040	-.011
	기독교천주교	.029	-.001	.009	.023	.021	-.023	-.035
	가정생활수준	.004	.042	-.018	.021	-.042	-.085*	.009
	실/인[d] 인문계	-.029	-.035	-.042	-.049	-.058	-.028	-.065
	실업계	.034	-.129***	.091*	-.012	-.050	.081*	-.011
	부모직업[d] 부직업 1	.060	.073	.040	-.094	-.097	-.044	-.151*
	2	.075	-.005	.057	-.132	-.022	.041	-.077
	3	.076	.052	.074	-.091	-.025	-.091	-.087
	모직업 1	-.009	-.027	-.022	-.014	.040	.045	.037
	2	-.020	-.001	.015	.003	-.004	-.006	.073*
	3	.012	-.028	-.049	-.012	-.009	.044	-.022
	부모학력 부학력	.023	.025	-.008	.110	.049	-.010	.019
	모학력	-.053	.048	.077	.040	-.041	.043	-.022
R^2	$R^2$1	.019	.011	.031	.009	.008	.132	.008
	$R^2$2	.030	.025	.050	.064	.020	.193	.065
	$R^2$3	.053	.101	.081	.110	.265	.240	.142

유의수준 ***: p<.001, **: p<.01, * p<.05 [d]= dummy variable : 생략된 카테고리⇒ 성별=여성, 종교=없다, 부 · 모직업=없음, 부모직업1:비숙련.생산.농수산 2:판매.써비스.자영업 3:사무.관리.전문직 인문계/실업계=혼합

그러나 사회질서, 학교생활, 교사폭언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설명력이 10%미만으로서 성차별, 미래희망, 부모무관심 등에 의해 스트레스 받는 정도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스트레스 받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 중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망의 수, 종교, 부모의 학력과 같은 변인들은 집단별 평균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으나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어느 종속변수와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다른 통제변인들에 비해서 그다지 영향력이 없어 보인다.

V. 요약 및 제언

이상과 같이 고교생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 생활사건들과 스트레스 주는 사람,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행동들을 조사하였고 스트레스 요인들에 따라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사회인구학적 요인, 심리 ·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대처방식들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 받는 정도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경험적 검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고교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생활 사건들은 비교 · 간섭 · 잔소리, 공부를 못하는 것, 교육풍토, 자신의 능력, 외모의 순 이었고 가장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람은 자기자신, 친구, 선생님의 순 이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자주 하는 행동은 욕을 한다, 음악을 듣는다, 잠을 잔다, 그냥 참는다, 가만히 있는다 또는 숨을 크게 들이쉰다와 같은 순 이었다. 이경희 · 김광웅(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스트레스에 대해서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항상 간직하고 있으리라는 예측을 하게 한다. 따라서 이들의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시설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거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며, 행동기술의 교육이나 적절한 문화적 환경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둘째, 전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심리 · 환경적, 대처방식에 따른 집단간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성별 집단과 스트레스 받는 정도와는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독립변인 집단별로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결과해석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부모무관심, 가정생활과 미래희망 없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심리 · 환경적 특성과 대처방식들과 높은 관계가 있으며 성차별에 의해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교육에 있어서 남녀 차를 고려할 필요성을 갖게 하며

셋째, 스트레스 받는 정도들이 사회인구학적, 심리 · 환경적요인과 대처방식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해본 결과는 스트레스원에 따라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달랐으며 각 종속변수들의 스트레스 받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이 달랐다. 독립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은 성차별, 미래희망, 부모무관심,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사폭언, 사회질서의 순서이며 사회질서, 학교생활, 교사폭언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설명력이 10%미만으로서 성차별, 미래희망, 부모무관심, 가정생활 등에 의해 스트레스 받는 정도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교생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들은 학교생활과 관련되는 것들이며 가정환경 요인들은 고교생들의 스트레스 받는 정도를 가감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인들이 스트레스 받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서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받는 정도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질서, 학교생활, 교사폭언으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미래희망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제공 원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갖는 기능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인들 중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족, 친구, 친척의 수, 종교, 부모의 학력 등은 고교생의 스트레스 받는 정도에 영향력을 보이지 않고 있었

다. 특히 친구수가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와 관련이 없음은 고교생에게 친구의 의미가 감소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고교생들의 친구관계의 의미가 양적인 것보다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원(이경희 · 김광웅,1996)으로서 질적인 것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되기도 한다. 연구대상자들이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적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는바 성적이 낮을 수록 학교생활, 가정생활, 부모무관심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는데 성적이 낮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을 덜 받는지 관심을 덜 받기 때문에 성적이 낮아지는지에 대해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위의 연구결과들에 따라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고교생들은 스트레스요인별로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달랐으며 특히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심리 · 환경적 조건들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다름으로서 고교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스스로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조절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다르게 해줘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을 지도하고 환경조건을 개선해주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특히 여러 독립변인 중에서도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여러 영역에서 가장 β 값이 높고 유의도가 높은 수준에서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부적 관계로써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을 지도할 때 여학생 남학생에게 다른 지도의 조건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추측케 한다.

본 연구결과들을 남학생 여학생 집단을 분리하여 스트레스 받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이 남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아봄으로서 남녀학생에게 어떻게 다른 조건을 제시해야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작업은 본 논문의 후속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이 전북지역 3개 도시 고교생(1.2학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며 고교3학년생이나 농촌지역의 고교생을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또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성희 (1991).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의 역할",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강현숙 (1989).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영식 (1985). "도시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문제와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석사학위논문.

고은숙 (1992). "취업부인의 스트레스,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고희숙 (1997). "고등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요인과 대처방식",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광일 외 (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I ", **정신건강연구** 1-40, 한양대 정신건강연구소.

김정겸 (1987).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용자 (1990).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인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방영자 (1997).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방문희 (199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1991.

백양희 · 최외선 (1997). "환경변인 및 내적통제력, 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pp. 33-47.

서혜진 (1993).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 언어적 표출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송 순 (1998). "사회적 지원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내적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1), pp.91-108.

신효식 · 이경주(1997). "십대자녀가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5(5).

안병조 (1983).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의 갈등실태에 관한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혜정 (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지각"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경희 · 김광웅 (199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이도영 (1990). "고등학교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그 대처반응에 관한 연구", 인하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명희 (1989).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장애에 관한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영 (1993).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시은 (1997).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영자 (1995).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이은영 (1981). "대학생들의 우울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재원 (1989). "스트레스유형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숙 · 조길자 (1982). "고등학교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변화 사건과 그 척도", **중앙의학** 제43권 2호.

이정순 (1988). "스트레스요인과 그에 따른 대응행동에 관한 고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목 (1985). "조직에 있어서의 스트레스요인 및 그 조정변인에 관한 소고", **행동과학연구** 제7권, 고려대 행동과학연구소.

정유미.김득성 (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4), pp.31-45.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최해림 (1986).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현황과 인지-행동상담의 효과".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Billing & Moos (1981). "The role of coping response and social resource in attenuating the stress of life events" *Behev Med* 4: pp.139-157.

Cohen,D.,Brurt, C.,E.,& Bjorck,J.P.(1987). "Life Stress and Adjustment Effects of life events experienced by You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pp.583-592.

Compas, B. E., Madarne, R.l., & Fondacaro,K.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3),* pp. 405-411.

Coopersmith (1967). "Studies in self-esteem", *Science America*, 218.

Eisenstadt S.N., (1972). "Archetypical Patterns of Youth" Practice-Hall.

Ebata A.T.,& Moos,R.H. (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ep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12, pp.33-54.*

Kaplan (1983). "Self-attitudes and deviant behavior new direc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Youth Society* 14.

Kovach B.F.,(1983). "The Experience of Adolescence", Scott Foreman and Company.

Lazarus, R.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Pearlin, Schooler (1979).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19., pp.2-21.

Riesman D.,(1961). "The Lonely Crowd", New Haven; Yale Univ. Press.

Roth,S., & Cohen,L.J. (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y 41.*

Rosenberg (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Silver & Wortman,(1980). "Coping with Undisirable Life Events". in {Human Helplessness: theory and applications}. Ed. by Garber J. Seligman MEP, new york, Mcgraw-Hill.

Yee A. H., (1968). "Source and Direction of Influence in teacher Pupil Relationship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9.